

신행수기

마음 찾아가는 길목 <중>

이정숙 (시인)

삼주 보살의 권유로 처음엔 별생각 없이 7일 기도를 시작했다. 자식과 남편에게 좋은 일 생긴다는데 누가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108배 기도를 마친 얼마 후 남편은 직장을 옮겼다. 가시적인 면에서는 직위가 높아졌으나 통념적인 면에서는 불안한 결정이었다. 소위 정당한 중앙 일간지 주간부 부장에서 거듭 실패만 하는 여성지의 편집장으로 갔으니 말이다.

“응, 그런 게 기도 공덕이다. 두고 봐, 그 회사 너네 깨 될 테나...”

불안해서 찾아가더니 삼주 보살은 정답을 했다. 남편의 회사를 옮기기 전이라면 말리더라도 했을 텐데... 어디 맞나 두고 보자고 별렀다. 그런데 반년도 못돼서 남편은 그 회사를 인수했다.

그 일은 나를 삼주 보살에게 꼭 빠지게 했다. 그 집을 들락거리면서 어느새 나는 절수행에 길들여졌다. 108배에서 300배, 500배, 1000배, 3000배로 삼주 보살의 주문은 늘어났고 7월에서 21일, 100일로 기도일수가 늘어지면서 전국 기도처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내가 법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기본으로 하는 절이 1000배였다. 월야정진은 늘 3000배 있을 정도로 몸에 배었다.

그때는 불법을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위기에 매료됐었다. 여자로서 불혹을 넘기는 변환의 시기에 겪는 힘든 시간들을, 절을 끝내고 나면 흐르는 땀과 함께 가슴 가득 물러오는 환희로 견뎌 나갔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기도 외박'을 눈감아 주는 남편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효과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기도의 영험은 반드시 있다. 구체적인 형상으로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어느 시점에서든 그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인지 기도도량에서는 그것을 '기도적감'이라 하기도 하고 '기도보람'이라고도 한다.

초발심자에게, 특히 나처럼 기초가 없는 불자들에게 절수행은 꼭 권하고 싶은 기도 방법이다. 부처님께서 기도공덕으로 먼저 주신 결과로서가 아니라, 궁극에 가서는



그림 · 김홍인

108배부터 3천배까지 절 수행 깊어져

몸과 마음 따로 없는 일념에 들며 환희심

마음 찾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와 힘을 다져주는 밑그림이기 때문이다. 당장 영험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많은 시간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스스로 알고 느낀다.

기도도량을 순례하다 보면 전설파라 3천리 같은 영험담도 많다. 고시합격, 대학 입시 합격, 건강회복, 송사문제 등의 성취는 기본이다. 내가 '전국구 보살'이라는 비

야강에도 개의치 않고 기도도량을 헤매던 것도 실은 큰아들의 대학입시가 원인이었다. 그 공덕이었던지 3남매 모두 좋은 대학 나오고 원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

“보살님은 어떻게 그렇게 절을 잘하세요?” 한자리에서 1000배를 거론해 해법 즈음에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았다.

“절을 하는 것이 제일 쉬워서요.” 사실 그랬다. 참선은 스님과 회색 옷을 근사하게 차려 입은 근엄한 보살들만의 것

으로 보였고, 가만히 앉아서 염불을 해도 잠님이 밀려드는데... 참선을 시도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일상을 다 접어놓고 귀한 시간 뒤로 하고 왔는데도 가스밸브는 잘 잠겼을까, 문은 잠그고 잠가, 오늘 남편은 약속대로 일찍들어 왔을까 등등 망상이 끝이 없다. 그리고 웬 줄음은 그리 밀려오는지... 그런 것들을 견디기엔 절수행 이상

가는 방법이 없다. 절수행이 몸에 배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스님의 목탁소리와 염불과 오체부지가 맞물려 돌아간다. 그때쯤은 팔다리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진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조차도 서늘하게 느껴진다. 3000배를 마치고 법당을 나설 때, 그 뿌듯하고 가슴 벅찬 환희심은 이미 기도가 성취됐음을 스스로 알게 한다. 절 일념에 녹아 있을때, 몸과 마음이 따로 없다. 그냥 움직이는 대로 몸을 맡기다보면, 어디에서고 맞출 수 없는 마음자리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어렵

게 느끼게 된다. 아마도 절수행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환희심을 알리는 방법으로서 옛 선지식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싶다. 나중엔 안 일지만 호흡과 오체부지가 맞아떨어진 현상이고, 흔히들 말하는 '절삼매'의 경지가 바로 그것인 것 같다. (계속)

킬레이 수행일기 <상>

1984년 5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의 법무사회관 8층 불교전 흥원 시민선방에서 있었던 이희의 선사님의 좌선지도 시간. 나는 선방에 붙여진 시간표를 보고 이희의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호기심만을 갖고 참석했다. 법회시간 보다 늦게 도착하여 방안에 들어서니 키는 작지만 행형한 눈빛을 내는 노인 한 분이 대중들 앞에 서서 선 지도를 하고 계셨는데, 20분간은 가부좌하여 좌선을 하게 하더니 죽비를 치고 가부좌를 풀게 한 뒤 나머지 20분 동안은 후식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셨다.

그때 앉자리에 앉아있던 50대 초반의 한 불자가 "선생님, <무문관>을 쓰셨지요?" 하고 질문을 던지자 선생님께서 "썼어요"라고 말씀하셨다. 그 불자가 "제가 <무문관>을 다 봤습니다"라고 하니, 선생님은 그 불자를 일으켜 나오라고 한 후 그 불자한테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 "<무문관>을



정경운  
법무사 '삼보선원' 지도법사

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이 될 때까지 좌선을 한다고 앉아 있던 했다. 그러던 한 불자가 "선생님, <무문관>을 쓰셨지요?" 하고 질문을 던지자 선생님께서 "썼어요"라고 말씀하셨다. 그 불자가 "제가 <무문관>을 다 봤습니다"라고 하니, 선생님은 그 불자를 일으켜 나오라고 한 후 그 불자한테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 "<무문관>을

20대 때부터 책 읽으며 참선에 관심

이희의 선사에게 '무' 자 화두 받아

보면 조주 스님에게 어느 때 한 스님이 '깨어계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조주 스님이 '무(無)'라고 했는데 그 '무'가 뭐요?' 그 불자가 '모르겠습니다'하고 열버무리자 선생님은 '여보! 그건 <무문관>을 본 게 아니오!'라고 하셨다.

그 광경을 보자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좌선의 스승이 내 눈앞에 계셨던 것이다.

당시 내 나이는 만 40세였는데, 내가 20대 후반에 불교를 만나면서 처음 본 경전이 <금강경>이고 그 다음으로 본 책이 <법보단경>이었다. 육척찬 환희심은 이미 기도가 성취됐음을 스스로 알게 한다. 절 일념에 녹아 있을때, 몸과 마음이 따로 없다. 그냥 움직이는 대로 몸을 맡기다보면, 어디에서고 맞출 수 없는 마음자리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된다.

아마도 절수행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환희심을 알리는 방법으로서 옛 선지식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싶다. 나중엔 안 일지만 호흡과 오체부지가 맞아떨어진 현상이고, 흔히들 말하는 '절삼매'의 경지가 바로 그것인 것 같다. (계속)

었다. 그러다가 이희의 선생님이 지도하는 시민선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처음 선방에 입실해서 선생님께 큰절을 올렸더니 '무(無)'자를 보라 하셨다. 선생님으로부터 무자 화두를 받고 약간 흥분되었다. 선사의 육성을 통해 '무자'가 뭐냐고 물으니면서 견네준 화두엔 생동감이 있었다. 나는 무자를 받아 무엇이 무자인가 하고 끝없는 의심하면서 무자에 빠져들었다.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거나 육체를 움직일 때도 무자가 무엇인가를 의심하고 있었

으로 본 책이 <법보단경>이었다. 육척찬 환희심은 이미 기도가 성취됐음을 스스로 알게 한다. 절 일념에 녹아 있을때, 몸과 마음이 따로 없다. 그냥 움직이는 대로 몸을 맡기다보면, 어디에서고 맞출 수 없는 마음자리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일 하다가 잠시 쉴 때는 물론 앉으나 서나 걸거나 방에 누워서까지 무자를 참구했지만 세월만 가고 무자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스승님이 80세의 연세라 얼마나 더 살아가실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것을 무자의 답이다 라고 제시해도, 저것을 제시해도 아니라고 하셨다. 나는 앞뒤가 막 막혀버렸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있는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불교신자들의 만남, 불빛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6월의 하늘이 너무도 맑아  
가만히 바라봅니다  
살의 번뇌하나 가슴으로 남아  
요즘 어려운 경제 관계로 힘드시죠?  
다소 도움이 되어 보고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이영숙 회장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32)345-5411  
휴대폰: 011)288-2944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에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http://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http://www.yukosound.com)

**당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당치발란스  
Zhangchi Ballance

개별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약리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약리대학 화합물연구소 부원장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신진대사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계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맞춤형 약이 시용됩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경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역학상담 전문가**

미래 상담역사 양성 목적  
타고난 운명과 다가를 인생 여정에 대하여 상담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의 고달픈 생활을 비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운셀러! 전통의 '동양역학 전문지식'전수로 불확실한 미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 양성과정"

**주요 교육 내용**

- ◆ 우주 참서론, 역학의 기원, 운명론 사주, 음양오행, 생리체학, 사주구경
- ◆ 대운, 세운, 합, 충, 파, 해, 삼이산술, 심이운성, 육친론, 지장간, 격국, 용신
- ◆ 성격, 직업, 건강과 질병, 재단, 부부, 자녀관계, 부귀빈천, 간지체성론, 풍합, 명필

**참가 대상**

- ◆ 기관 기업체 퇴직자 및 주부, 일반인, 대학생으로 평생직업으로 전향하실 분
- ◆ 부동산중개업, 결혼상담업, 심리직성을 상담하여 성공하실 분

■ 특 전

- 한국역리사자적 검증관리협회 자격증 시험응시 자격부여
- 수료후 **합격자 전원** 전화상담사 및 일반 상담요원으로 **취업보장**

■ 중요교육내용 \*개강 날짜의 비람

과목	시간	강사	수업료
명리	토요일(오후2시~6시)	일요일(오후2시~6시)	유병현 25만원(5개월 완성)
육효	월요일(오후7시~10시)	보충수업가능	유병현 25만원(4개월 완성)
육임	수요일(오후2시~5시)	보충수업가능	정수연 25만원(3개월 완성)
자미두수	화요일(오후2시~5시)	보충수업가능	정정림 25만원(4개월 완성)
원문	목요일(오후7시~10시)	원문 해독	박종현 12만원
관상	금요일(오후2시~5시)	이론과실제 병행	신장근 20만원(3개월 완성)

※ 각 과목 최고 강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 교육 장소  
KTA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교육원 전철 1호선 신설동역 5번출구 남동방향 30m

■ 신청 및 문의처  
02)929-4646 / 4643, 018-350-7150

**주관 KTA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교육원**